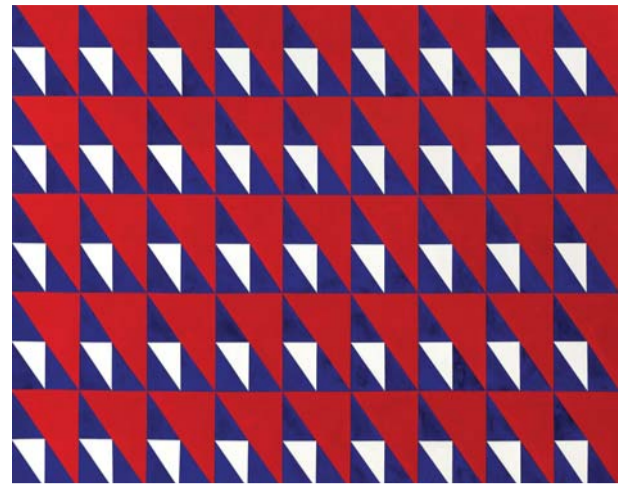




오는 9월 정식으로 문을 여는 광주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드레마당' (가칭)은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나는 문화공간이다.

〈광주시 동구청 제공〉



'적폐청산도'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홍성국 개인전, 8월1~7일 나인갤러리

서양화가 홍성국 작가 개인전이 오는 8월1일부터 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나인갤러리에서 열린다.

'평화 기원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인류가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세계 국기를 소재로 한 '세계평화 기원도'를 비롯해 노동의 소외와 착취로부터의 해방, 친일잔재 청산과 적폐청산 등 광화문 촛불혁명의 정신과 주장을 담은 작품이다.

또 사회의 양극화에 의한 불평등구조를 상상연대의 틀로 바꾸어내고, 인간의 탐욕에 의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해 죽어가는 자연환경을 살리는 것, 탄소에너지 과소비를 줄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대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단순한 색과 직각 삼각형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한 것발로 형상화했다.

목포교육대와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홍 작가는 전남도미술대전 대상을 비롯해 목우회전에서 입상했으며 전업작가회, 수목회, 한국미협, 창조미협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홍 작가는 지난 7월 말 서울 인사동 G&J 광주-전남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춘천과 목포에서도 전시회를 이어간다. 전시 오픈 8월 1일 오후 6시. 문의 062-375-963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민·예술가·상인 어우러진 '문화예술 발신지'

지난 24일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는 독특한 행사가 열렸다. 예술 후원자인 패턴과 예술가들의 만남인 '공동 미로(美路)-파트런(patron) 스테이션'이었다. 서양화가 최재영 작가 등 예술의 거리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예술가를 포함해 30여명의 작가들과 예술애호가 등 70여명이 교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행사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예술인 기업가 마인드! 투자를 부른다'를 주제로 양경준(주)크립톤 대표의 특강도 열렸다.

행사가 열린 곳은 '공동예술드레마당' (가칭·이하 드레마당)이었다. 1년여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이날 처음으로 공간을 시민들에게 오픈했다. 예술의 거리를 지난 때마다 '완성 모습'이 궁금했던 타라 이날 직원들의 안내로 공간 구석 구석을 둘러봤다.

사실, 예술의 거리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연례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술의 거리의 '거점' 역할을 할 공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주민, 상인, 예술가들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동체 조성에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드레마당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에 선정되면서 건립이 추진됐다. 문화예술 인력자원과 프로그램 콘텐츠 자원이 드레마당 공간 자원을 매개로 상시 결합·연계되는 플랫폼이 목표였다. 이번 건물 완공으로 공간 확보에 이어 올해부터 콘텐츠 중심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추진되면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도시재생이 탄력을 받게됐다.

드레마당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국비와 시비 국비 등 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드레마당은 기존 메타미술학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4층 건물과 새롭게 신축한 3층 건물 2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눈에 띄는 건 계단을 올라가면 만나는 넓은 야외 공연장이다. 다채로운 공연, 플라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 적합한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멀리 무등산도 보인다.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드레마당' 준공

82석 규모 예술극장·갤러리·북카페

레지던시·공방·야외 공연장 등 갖춰

동구청-문화단체 공동 운영...9월 정식 개관

신축동 1층에는 기존 무등갤러리와 연계한 전시 공간이 들어섰다. 47평 규모의 당초 갤러리와 더불어 24평 규모의 갤러리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연계되면서 총 81평으로 확장돼 대규모 전시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 갤러리 건물에 맞추다 보니 새로운 공간의 층고가 낮은 게 조금 아쉽다.

예술가·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춰 놓은 공방(메이커 스페이스) 등 문화예술교육 체험 공간이 마련됐으며 3~4층에는 82석 규모의 작지만 쾌적한 공연장이 들어섰다. 이곳은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기존의 공동예술극장과 함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모델링동 1층에는 임대료 운영될 북카페가 들어서며 2층에는 예방 남도의 문화 관련 자료들을 만날 수 있는 '남도 라이브러리'를 배치했다.

3층은 아트 레지던시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공간에는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작가들이 머물며 작업을 할 예정이며 광주 지역 작가들 역시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다. 4층에는 예술의 거리 상인, 작가 등이 세미나, 협업회, 소규모 미팅 등을 진행할 다목적 공간도 마련했다. 주황색 페인트로 질한 주차장은 우선 시 다양한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드레마당은 광주시 동구청과 문화적도시재생사업단 주체인 교



건물 2동과 넓은 야외공연장으로 구성된 '공동예술드레마당'

육문화공동체 결이 함께 문화공동체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한다.

드레마당은 오는 9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며 10월말까지 진행되는 '빛나는 거리, 예술로 공동' 행사도 이곳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 미로(美路)-파트런(patron) 스테이션'은 드레마당에서 9월 조맹계(전 소더비아시아부지사장) 용인대 교수를 초청, '세계 미술시장'을 주제로 강연하며 여성·청년 창업가를 위한 특강 '예술로 창업'(11월), 작가 직거래 셀프마켓을 운영하는 공동 패턴 무빙 파티 '나도 예술가를 응원해' 등을 연다. 문의 062-608-223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보물책 찾기' 프로그램 개최

ACC 라이브러리파크 곳곳에 숨겨진 보물책을 찾아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하 ACC)은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ACI)과 오는 8월1일부터 15일까지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보물책 찾기' 프로그램을 ACC 라이브러리파크에서 개최한다.

ACC문화정보원 내에 자리한 라이브러리파크는 6만 2000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아시아문화 전문도서관이다. 청구기호에 따라 도서를 서가에 비치하는 일반 도서관과 달리, 라이브러리파크는 아시아의 건축과 전시, 디자인 등 훨씬 세분화된 주제별로 구분돼 있다.

'보물책 찾기'는 위와 같은 ACC 라이브러리파크만의 특징을 활용한 이벤트로 참가자는 보물책 청구기호를 힌트 삼아 라이브러리파크 서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책 10권을 찾으려 된다. 성공한 참가자 중 일부는 ACC가 준비한 특별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매일 선착순 30명)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A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1-4433. /박성천 기자 skypark@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양시장 앞 061) 752-9940